

# 가족연구의 이론적 시각-기능주의 가족이론의 한계와 대안적 논의

## Critical Review on Functionalistic Perspective in Family Study, it's Limitation and Alternatives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 裴 善 姬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Doctorial Course : Sun Hee, Bae*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대안적 논의     |
| II. 기능주의 가족이론과 그 한계 | IV. 맺음말<br>참고문헌 |

###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rethink assumption that the family can be 'a heaven' to everyone in a harsh world through theoretical review.

Functionalists insist that people feel emotional secure through family life. However this perspective sees only the one side of the family experience, ignoring the other side of its tension and conflicts in the family.

From marxist perspective, the family experiences may not be the same among different social classes due to their economic inequality. It might be that middle class family is more likely to experiences emotional secure than any other social class.

Feminists have challenged prevalent assumptions about the family. They see that women are oppressed by the family.

These results mean that marxist and feminist perspectives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 of functionalism.

I'd like to propose that marxist and feminist perspectives can be used framework for the family study.

## I. 머리말

우리가 항상 생활하고 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연구는 가족 자체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객관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자칫 진부해지기 쉽고 무비판적이 되기 쉽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가족연구가 그 대상으로 삼는 가족개념에 대한 이론적 시각의 편향성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업적이 축적되고는 있지만 연구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가족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고 이에 기반하여 보다 「건강한」 가족생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정형화된 가족개념과 편향된 이론적 시각은 가족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론적 시각의 확대와 이에 기반한 연구영역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1)</sup>.

가족개념에 대한 재고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한 반성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가족개념에 대한(상식적이건, 학문적이건) 대안은 기존의 사고방식에 대한 도전이며 인식의 혁명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민경자, 1993 : 133). 따라서 이 작업은 기존 관념들이 너무 강하게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수할 위험,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위험을 수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개념들이 실제로 가족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측면만을 묘사하고 있다면 문제이다. 예컨대 가족이라는 개념에 ‘물체와 같은(thing-like)’ 성질을 부여하는 것, 즉, 가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에 맞추어 특정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경우에는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가족경험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가족(the family)이라는 개념 대신 다양성을 의미하는 가족들(families)이라는 개념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Elliot, 안병철·서동인 역, 1992 : 19).

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가족에 관련된 개념 중의 하나인 ‘경쟁이 생존원리인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안식처’라는 기존의 가정(假定)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개념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는 것 같다. 적자생존의 살벌한 경쟁적 자본주의 사회는 가정적 영역을 매정한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로 보이게 하며, 또한 도피처로서의 가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와 애정적 보살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족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현 가족구조가 구성원들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계급모순, 성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인 경우가 많다(민경자, 1993 : 132).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전제하는 안식처로서의 가족은 모든 사람이 전부 누릴 수 있는 경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연구는 모든 사람에게 가족은 ‘삼막한 세상에서의 안식처’가 된다는 가정을 미리 전제하고 행해지는 실정이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것은 기능론에 입각한 정형화된 가족개념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론편향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현대사회에서 이 제도를

1) Giddens(1982)가 주장하는 ‘일상적인 것을 낯선 눈으로 재조명하며, 가시적인 영역의 저변에 숨겨진 잠재적인 것과 그 구조를 밝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와 인간에 대한 편견을 일깨우고 일반상식과 기정사실로 수용되어온 것을 불신한다.’라는 사회학 연구의 전제는 이러한 시각의 유용성을 뒷받침해준다(김혜순, 재인용, 1991 : 205).

대체할 만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식처로서의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기능론에서 전제하듯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계급의 경험을 일반화시켜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가족 속에서는 편안함을 느낀다고 결론지우는 기능론적 관점은 가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가족에 대한 계급론적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은 이런 문제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기능론에 입각하여 가족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고, 그리고 그 한계를 이야기할 것이다. 계급론적 관점에 의해서는 계급간에 가족경험이 다름을, 페미니즘 관점에 의해서는 가족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구성원의 성별에 따라 그 경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가족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 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는 기존의 가족개념을 이론을 통해 재검점 해보는 서설적 논의에 한정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 II. 기능주의 가족이론과 그 한계

가족에 관한 기능론적 관점은 20세기 중반에 사회과학의 중요한 이론으로 등장한 산업사회이론을 적용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Parsons에 의해 산업사회의 가족이론으로 정립된 후 1960년대부터 가족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계급론과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관점의 도전에 의해 서구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lliot, 1992 : 23). 이와같은 학문적 조류에서 그래도 가족에 대한 기능론적 접근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관점이 가족에 관한 통념에 밀바탕이 되어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은 우리나라 가족연구의 대부분에서 유용한 분석틀로 이용(조 은, 1986 : 278-279)되어

가족연구의 질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가족에 관한 기능론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과 그 한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기능론의 일반적 전제

기능론은 사회를 상호 관련되고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의 체계로서 이해하고, 부분들은 자체내(in-built)에 상호 적응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 전체는 형평 또는 균형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여러 부분들은 전체의 유지, 통합 및 연속에 기여하는(효과가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또한 체계의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체계의 다른 부분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본다. 기능주의 이론가들은 변화를 완만하고 진화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변화가 그 자체 자극을 가지고 있는 도시화와 산업화와 같은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족 변화에 대한 기능론적 분석은 가족이 기계론적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묘사하게 되는 것이다(Collier, Rosaldo & Yanagisaco, 김선영 역, 1991 : 53). 간단하게 말하면 기능론은 가족제도가 전체 사회 구조의 변화, 특히 경제구조의 변화에 맞게 기능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가족에 관한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가족과 다른 사회제도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의 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족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파악하고, 그리고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들을 알아 내려고 하게 된다(Elliot, 1992 : 24-25). 기능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가족이란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 특히 산업화에 의해 생겨나는 욕구를 가족이 만족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가족이 사회 통합과 안정에 적응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능주의자들은 가족을 사회의 생존에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전제하게 된다(Gittins, 1985 : 60).

이러한 기능론의 전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정한 세상에서의 안식처'로서의 통념적인 가족 개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왜 여자(주부)가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족을 '무정한 세상에서의 안식처'로 보는 견해는 기능주의 사회학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 관점에서는 현대사회는 불안정하고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이면서 동시에 관료적인 관계 체계인 반면 가족은 사랑과 친밀감을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정의적인 관계 체계라고 전제한다(Lasch, 1985). 즉 기능론의 입장에서 볼 때, 경쟁적인 사회와 정의적인 속성을 가진 가족은 상호 보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 통합과 안정을 도모하게 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설명으로 더욱 명확해진다.

산업화에 의해 생산이 가족의 영역에서 제외되면서 가족 내에 엄격한 규칙과 분명한 권위 구조가 있어야 할 필요가 적어진다. 그러나 이제는 비인간적 환경 속에서 임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 정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안식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가족이고 따라서 가족은 정서적인 장(場)으로 자리 매김 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가족과 가족구성원은 생산이 산업화됨으로써 창출된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Collier, Rosaldo & Yanagisaco, 1991 : 53).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은 그 이전에 비해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파슨스와 같은 기능론자들은 역할의 전문화(특화)라는 면에서 보기 때문에 가족의 힘이 약화 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들은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경쟁적인 공적 세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커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안식처로서의 가족역할을 책임지는 사람이 여성(주부)이라는 사실이다.

기능론에서는 가족을 성(性)에 기초한 역할의 통합체로 보고 각 성의 역할이 잘 수행되었을 때 가족체계가 유지되고, 또한 가족체계를 통해 사회체계가 유지된다고 본다(가족은 조화롭고 화목하며, 사회에 적응적이라 한다). 양성의 역할을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로 나누고 가족내 아버지에게

전자의 역할을, 어머니에게 후자의 역할을 부과시킨다. 아버지는 외부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고 가족의 물질적 필요에 부응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와 가족을 연결시키는 반면에 어머니는 자녀양육과 가사를 책임지는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개별성원을 가족으로 통합시키며 가족을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표현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가정의 중심적인 존재로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기능론에서는 이 양성의 역할은 양립될 수 없고 한 쪽 성이 두 가지 역할 모두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여성이 주부-어머니 역할을 맡고 남성이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할 때 사회적 과업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할당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과업의 분화가 반드시 성(gender)불평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남녀의 상이한 역할은 보완적인 것이어서 사회를 기능하는 전체로서 유지하는 데 양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가족에 관한 기능론적 견해를 살펴보았는데, 그 주된 요지는 가정내 역할 분담은 성별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결과 가족원 모두가 만족감을 느끼고 가족은 정서적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것은 나아가 사회통합과 유지에 기능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족이란 통합된 하나의 이해집단(利害集團)으로서 가족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주안점을 두는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포하고 있다.

## 2. 한 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능론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성과 가족관계의 설명에 치중하여 가족원들의 적응과정과 역할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가족이 내포하고 있는 갈등적 측면을 간과하고 특히 계급별로 가족경험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민경자, 1993 : 131). 실제로 계급론자와 페미니스트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은 가족구성원간의 조화로운 이해관계보다는 상이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장(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Hartmann, 홍찬숙 역, 1988 : 159-161).

현대가족을 연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 현대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가족내의 관계가 기능론이 주장하듯 언제나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가정은 갈등(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간의 심리적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로서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불만과 긴장의 근원처임을 주장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 그리고 자아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Laing(1971)은 가족이 개성을 제한하고 자아인식을 억누른다고 주장한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은신처이며 안식처인가를 묻고 있다. 그들은 구성원들간의 권위의 불평등으로 인해 가족은 긴장의 장소라고 주장하며 가정이 남성에게는 안식처 혹은 적어도 여가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여성에게는 안식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가정을 사적 공간으로 전제하는 안식처로서의 가족개념은 가족생활의 긴장감을 간과하고 있고 가족구성원들의 경험, 특히 양성의 경험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가족내의 갈등과 억압을 은폐하고 가족내의 약자(여성과 어린이)의 고통과 희생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민경자, 1993 : 130). 이것은 정서적 안식처라는 가족의 개념과 그 속의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경험간에는 불일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능론에서 주장하는 가족이란 사람들의 경험과는 유리된 이데올로기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Collier, Rosaldo & Yanagisaco, 1991 : 53).

### III. 대안적 논의

가족에 대한 기능론적 접근은 가족의 실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다양한 학파로부터 도전을 받아왔는데, 계급론적 관점과 페미니스트 관점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절에서는 이 관점들에 대해 살펴 보겠다.

#### 1. 계급론적 관점

막시즘은 Karl Marx의 이론에 기초한 풍부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및 정치사상 체계인데, 기

능주의 이론에 대한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제도에 대한 Marx의 이해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량과 물질을 생산해야 한다는 단순한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Marx는 생산활동은 사회를 규정하는 데 중심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는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사회질서의 모든 다른 측면(가족, 교육, 정치, 법제도, 지식체계, 신념, 가치체계 등)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주장을 견지하였다. Marx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구분하였고, 상부구조의 성격은 하부구조의 성격과 잘 맞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서 Marx는 생산의 사회 조직에서의 결정적인 특징은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에 따른 두 개의 대립적인 계급으로 사회가 분화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 관해 쓰면서 Marx는 산업적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강제로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간의 근본적인 계급분화를 기술하였다. 또한 Marx는 사회관계는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변화한다고 믿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생산력의 발전이 일어나고 바로 이것이 사회질서의 모순을 가져와 사회적 생산관계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 따라서 계급갈등은 사회질서에 내재한 것이고, 변화는 대립적인 세력들간의 갈등의 결과로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계급론은 이와 같은 기본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론의 창시자인 Marx는 가족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의 동료인 Engels는 핵가족의 진화과정을 설명하면서 가족은 기능론에서 주장하듯 자연적이거나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생산양식(물질토대)의 변동에 조응하여 변화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Engels의 주장은 가족을 변화하는 제도로서 이해하려는 최초의 시도로서 가치가 있다. 그 이후 가족은 계급론에서 무시되다가 최근에 와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가족에 대한 계급론적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친족으로부터 핵가족의 고립 및 핵가족 관계의 강화를 가정한다. 또한 다른 제도적 영역에서 현대 가족의 구조적

분리를 강조하고 가족을 출산, 육아, 개인에 대한 심리적 자원의 제공에 일차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가족변화가 경제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현대 부부가족과 현재의 사회질서간에 밀접한 적합도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기능론적 관점이 사회를 기능하는 전체로 보는 반면, 계급론적 설명은 최종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이해, 권력이 생산관계상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적대적인 계급들로 사회가 분화되어 있다고 전제한다(Elliott, 1991 : 91). 그러므로 기능론에서는 가족의 역할을 사회의 안정과 연속에 공헌하는 것으로 보지만, 계급론자들은 이러한 가족의 역할을 '억압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기술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명제에 의해 보충 설명될 수 있다. 즉, 가족은 아동들을 자본주의 이념으로 사회화시키고, 계급구조에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며,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 정서적 지원의 은신처를 제공함으로써 작업장에서의 좌절을 없애며, 가구를 사영화하고 과격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재정적 책임을 지움으로써 노동계급의 결속을 저지시켜 적대계급으로 이루어진 억압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재생산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논리이다.

결국 오늘날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인간관계, 심리적 보호, 개인적 능력개발 등의 특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가 아니라 산업자본가의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지배를 위한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Donzelot(1979)은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의 한 사람인데 그에 따르면 국가 및 자본의 정책을 가족에 대한 사찰이라고 정의하고, 자본주의의 발전은 가족의 소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조직체의 요구에 맞춰 가족이 인위적 변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성원들의 상호보호와 부양으로 표현되는 가족생활의 도덕성은 사회적 억압에서의 해방을 도모하기 보다는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를 위장시키며 따라서 가족은 계급적 지배의 재생산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장경섭, 재인용, 1991 : 195).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가족은 자본주의의 논리

때문에 계급을 재생산하고 모든 가족은 은신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구조 자체에 계급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전제되어 있음을 상기해 볼 때, 모든 가족이 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은 가족의 생존이 어느정도 보장된 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족생활의 경험은 경제적 기반의 차이로 인해 계급적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가 계급의 가족관계는 「화폐관계」<sup>2)</sup>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계의 속성상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기층계급(노동자, 농민계급)의 경우에는 전체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임금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결혼에 대한 부모의 억압적 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재생산이나 정서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층은 물질적 조건이 가족관계를 화폐관계로 만들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는 되므로 가족원들의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가족에 대한 계급론적 관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계급별로 가족경험이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정서적 안식처로서의 가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계급은 중간층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족이 가족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계급론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론적 관점은 지나치게 계급 모순만을 부각시키고 가족내의 성별분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희박하여 성별갈등과 성모순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제로서의 가족이라는 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가족들(Families)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뛰어나지만 가족내 구성원간의

2) Engels는 산업화에 의해 자본가 계급 가족의 생산적 측면이 사라지면서 가족관계가 「화폐관계」로 변했다고 주장한다(김홍주, 재인용, 1993 : 11).

3) 계급분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본고에서는 자본가 계급, 중간층, 기층계급(노동자, 농민)으로 분류한다.

성별역압과 갈등구조를 분석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가족에 대한 페미니즘적 관점이 유효하다 하겠다(김홍주, 1993 : 14).

## 2. 페미니즘 관점

여기에서는 가족경험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앞서 기능론과 계급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도 내에서 가족에 대한 페미니즘 관점을 살펴보겠다.

기능론이 가족을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가족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비난하며,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를 강조하는 것에 비해 페미니즘은 계급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하고, 따라서 변화에 대한 요구를 지지한다(Elliot, 1992 : 30).

페미니즘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므로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되었다고 가정하며, 여성의 예속적 지위로부터 세계를 기술하고 설명한다. 불평등의 본질과 기원, 변천관정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자유주의 페미니즘, 막시스트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성불평등이 교육이나, 각종 기회, 법률 등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제도에 기인한다고 보고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입장이다. 나머지 세 가지는 불평등의 원인을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모색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과는 변별된다. 이 세가지 페미니즘은 사회불평등의 본질을 계급간의 불평등으로 보는 계급론적 관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막시스트 페미니즘은 계급적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성불평등이 계급론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활용되고 변화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반면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사회불평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성불평등으로 보아 성불평등의 해소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계급불평등은 논외로 취급한다. 이들은 성불평등을 가부장제 개념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계급론적 관점과 급진적 관점의 기본 입장을 수용하면서 계급과 성이 사회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일관성이 결여된

학문적 기회주의이며 절충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혜순, 1993 : 51-52). 이 관점들의 공통된 점은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되었다고 본다는 것과 성별분업을 예속의 한 측면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특히 급진적 여권론자들은 모든 여성은 자신의 계급에 상관없이 억압을 공유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가족은 바로 그러한 여성에 대한 억압이 그대로 재현되는 장소라고 페미니스트들은 전제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여성의 존재기반은 가정이었고, 가족의 존재구조가 여성의 억압적 상태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현실과 여성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가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당하는 현실적 억압들은 가족에 대한 검토없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페미니즘 시각에서 가족은 중요한 분석대상이 된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하면 가족은 통일된 실재가 아니라 성과 세대에 의한 권력관계의 조합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소년, 소녀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족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Gittins, 1985 : 2). 특히 가족에 대한 여성의 경험은 왜곡되고 은폐되어 그 실상을 파악하기 힘든데, 그것은 현대 가족의 초상에 담겨 있는 세가지 주제 즉 '모성에 대한 찬미' '애정과 합의를 가족관계의 기초로 강조하는 것' '은신처이며 천국같은 가족의 개념' 이것이 여성의 경험을 신비화하기 때문이다(Thone, 노영주 역, 1991 : 20-21). 그러나 실상을 보면 Michell이 '모성이 하나의 신화로 이용될 때 그것은 억압의 도구가 된다'고 주장하였던 것과 같이 모성과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대한 찬미는 어머니로서의 과제와는 별개인 혹은 상호작용하거나 모순되기 조차한 여성 자신의 생활, 욕구, 활동, 관계의 욕구충족을 방해하므로 여성을 억압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사랑과 동료화로 정의되는 부부관계도 권력의 불균형에 의해 여성억압의 주축이 된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부인학대를 든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가족원의 경험은 변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족은 누구를 위한 안식처이며 애정적 천국인가를 묻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보다 가사노동을 덜하는

남성에게는 가정이 정말 은신처 혹은 여가의 장소로 경험될 수 있지만 상당한 양의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가정이 지옥의 장소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Thone, 1991 : 21-27).

요약하면 가정은 기능론에서 주장하듯 갈등과 대립이 없는 평화와 조화의 단위이며 그 안에서 가족성원들은 서로 같은 방식으로 가족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는 이해, 갈등이 내재된 장(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여성의 경험이 신비화되어 그들이 겪는 억압이 은폐되어 있었다.

페미니즘 시각은 여성을 주체로서 그리고 개념적으로 가족에 매몰되지 않은 개인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다른 접근법과 다르다. 그리고 여성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가족이 여성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Bridental, 권오주 역, 1991 : 305)는 점에서 가치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계급론적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은 계급, 성에 따른 가족경험의 다양성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기능론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해준다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본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개념이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데올로기로서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이론적 논의를 통해 재고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위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가족이 삭막한 세상에서의 안식처'가 된다는 통념적 개념 정의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개념은 다분히 기능론에 입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점은 가족내 성과 세대에 따른 역할 분담에 의해 가족원 모두가 만족감을 느끼며, 따라서 가족은 정서적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능적으로 작용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접근은 가족이 내포하고 있는 갈등적 측면을

간과하고 특히 계급과 성에 따라 가족경험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가족연구에서 이론적인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계급론적 관점에서는 자본가 계급의 기층계급(프롤레타리계급)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전제로 하며 이것은 자본주의 논리때문이고, 가족은 바로 이러한 계급을 재생산하는 제도라고 규정한다. 가족이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생존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급은 중간층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가 계급의 가족관계는 화폐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적고, 반면에 기층계급의 경우에는 전체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결혼에 대한 부모의 억압적인 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재생산이나 정서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억압을 전제로 하며 이것은 가부장제 때문이고, 가족은 바로 이러한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제도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여성이 어떻게 억압받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족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가족은 성과 세대에 의한 권력관계의 조합이며, 각 성원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족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모성에 대한 찬미' '애정과 합의를 가족관계의 기초로 강조하는 것' '은신처이며 천국같은 가족' 등의 개념이 여성의 경험을 신비화하여 그들이 겪는 억압을 은폐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가족이 안식처가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사회를 위해서는 기능적이라는 제도들이 개인을 위하여는 기능적이지 못할 수도 있으며, 가족이 사회의 질서와 통합에 기능적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기능론자들의 입장은 가족제도를 통해 희생될 수 있는 가족성원, 특히 여성의 피해를 간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Hartmann, 1988).

위의 사실로 비추어 보아 본 연구는 우리가 가족을 논의할 때 보편성의 의미를 가진 가족(the family)이라는 개념 대신 계급별 차이와 가족내 구



성원간의 차별성이 부각된 가족들(families)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함을 말해주며, 그리하여 우리가 도외시한 계급론적 관심과 페미니즘 관점이 가족연구의 중요한 분석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가족경험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한정했으므로 구체적 실태파악으로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태파악에 의한 구체성의 확보는 앞으로 필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 참고문헌

- 1) 폴리어, 제인, 미첼 로살도, 실비아 야나기사코 (1991). 가족은 존재하는가. 권오주 외 역,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서울 : 한울 38-56.
- 2) 김혜순(1993). 사회불평등 : 계급불평등과 성불평등. 성평등의 사회학, 서울 : 한울.
- 3) 김홍주(1993). 한국의 가족문제와 가족복지의 방향. 한국사회사 연구회 자료집.
- 4) 브리덴탈, 리네이트(1991). 가족. 권오주 외 역,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서울 : 한울 293-310.
- 5) 미셸, 앙드레(1990). 가족과 결혼의 사회학. 변화순 역, 서울 : 한울.
- 6) 민경자(1993). 가족. 성평등의 사회학. 서울 : 한울.
- 7) 쏘온, 베리(199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서울 : 한울 7-36.
- 8) 엘리엇, 페이스 R.(1992). 가족사회학. 안병철 서동인 역. 서울 : 을유문화사.
- 9) 이영자(1991). 페미니스트 패러다임의 사회학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학, 25(겨울)
- 10) 장경섭(1991). 가족문제.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 11) \_\_\_\_\_(1992).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통권 15호(가을).
- 12) 조 은(1986). 가족사회학의 새로운 연구동향과 이론적 쟁점. 한국사회학, 20(여름).
- 13) 하트만, 하이다(1988). 성, 계급, 정치투쟁의 장으로서의 가족 : 가사노동의 예. 이효재 편,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서울 : 까치 158-188.
- 14)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1992). 새로운 사회학강의. 서울 : 미래사.
- 15) Gittins, Diana(1985). The family in question. Atlantic Hightland, N.J. :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 16) Lasch, Christopher(1986). The family as a haven in a heartless world. In A.S. Skolnick and J.H. Skolnic(5th ed), Family in transition. Boston : Little Brown 533-543.
- 17) Morgan, D.H.J.(1985). The family, politics and social theory. Boston : Routledge and Kegan Paul Plc.